

Media Release

IFM Investors 



IFM인베스터스, '프라이빗 마켓 700' 서베이 발표

“AI 투자 기회, 데이터센터 넘어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

- 사모 시장 및 인프라 투자 비중 확대... 불확실성 속 회복탄력성과 분산투자 중요성 부각
- AI-에너지 전환 등 메가트렌드 확산...인프라가 장기 성장 기회 핵심 투자처로 부상
- 아시아 지역, 높은 인프라 및 기술 투자 보여...한국 등 첨단 기술 제조 및 수출국 영향

(2026. 9. 29 – 서울) 인프라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에너지 안보, 디지털화와 같은 메가트렌드를 아우르는 장기 성장 테마로 여겨지면서 데이터센터를 넘어 인프라 전반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억 달러(약 273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IFM인베스터스(이하 IFM)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라이빗 마켓 700' 서베이를 29일 발표했다. '프라이빗 마켓 700' 서베이는 전 세계 19개국의 시니어급 투자 전문가 700명의 응답을 토대로 사모 시장의 최신 투자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63%가 향후 3~5년간 인프라 지분 투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절반 이상(53%)은 분산투자를 사모 시장 비중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인프라는 포트폴리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투자자들은 전 세계 운용자산(AUM)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사모 자산군에 투자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북미와 서유럽 등 선진 시장에 투자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선정되었다. 응답자의 55%는 인플레이션을 포트폴리오의 3대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목했으며, 47%는 거시경제 요인이 사모 시장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러한 위험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보유 포트폴리오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해서는 21%가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답했으며 9%만이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이 기관투자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핵심 투자 테마 중 하나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장기 메가트렌드에 투자하는 것이 향후 수익률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답했으며, 관련된 첨단기술과 통신, 환경 및 재생에너지 자산 역시 사모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61%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데 사모 시장이 공모 시장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투자 기회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이를 가동하고 연결하며 생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발전과 송전, 에너지 공급, 데이터 연결성 등 AI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영역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각되며, 향후 10년을 이끌 주요 투자 테마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투자처로 인프라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AI 관련 투자처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2%)는 메가트렌드 투자 기회로의 강한 자금 유입이 향후 수익률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투자자들이 인프라와 기술 관련 투자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3~5년간 인프라 지분 투자, 인프라 대출 투자, 사모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한 아시아 투자자의 비율은 글로벌 평균을 웃돌았으며, 인프라 지분 투자의 경우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통신 인프라를 사모 시장의 유망한 옵션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의 비율은 글로벌 평균이 34%인데 비해, 아시아 투자자는 46%로 월등히 높았으며, AI와 같은 장기적인 메가트렌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 역시 78%로 글로벌 평균인 71%를 넘어섰다. 이러한 기술 투자 선호 현상에는 한국과 같은 첨단 기술 제조 및 수출국이 위치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한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사모 시장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투자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모 시장 투자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46%는 장기간의 투자 약정과 낮은 유동성을 꼽았으며, 높은 수수료가 43%, 규제 요건이 35%로 그 뒤를 이었다.

추가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39%는 더 높은 유동성이나 보다 유연한 환매 조건이, 35%는 공동투자 기회 확대와 기초자산 노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33%는 분리 계정 위임 운용이나 컴플리션 포트폴리오와 같은 맞춤형 솔루션을 필요 요소로 꼽았다.

조직 내부의 전문성 부족 역시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조사에 따르면, 제한적인 내부 전문성이 복잡한 테마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능력을 제한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4%, 자사 내부 전문 역량의 수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 역량뿐 아니라 전문적인 시장 인사이트와 포트폴리오 구성 역량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루바 니쿨리나(Luba Nikulina) IFM인베스터스 최고전략책임자(Chief Strategy Officer, CSO) 코멘트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빠른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포트폴리오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프라이빗 마켓 700 조사는 투자자들이 회복탄력성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는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선호되는 투자 대상인 이유 중 하나다.

“AI는 데이터센터들,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전력망, 광섬유 연결망을 필요로 하며, 에너지 안보 역시 발전과 송전, 필수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세계적인 투자 테마와 인프라 투자 기회가 점차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투자자들이 인프라 및 에너지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모 시장에 보다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심을 지속 가능한 투자 확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유연성과 투명성, 전문 역량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

<IFM인베스터스 소개>

IFM인베스터스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로 1994년에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인프라 지분 및 대출, 사모 주식, 사모 대출, 부동산, 상장주식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IFM의 총 운용자산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총 2,017억 달러(약 273조원)이며, 호주, 유럽, 북미 및 아시아에 위치한 16개 사무소를 통해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지사항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는 투자 권유, 제안 또는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 조언이나 계약 또는 약정의 근거로 신뢰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정보는 투자, 법률, 회계, 규제, 세무 또는 기타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IFM Investors Pty Ltd(이하 “IFM인베스터스”)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예비 투자자가 재무 자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투자 니즈, 목표 및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 처리는 각 예비 투자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IFM 인베스터스의 서면 동의 없이 복제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code: IFM-28SEPTEMBER2026-5964977